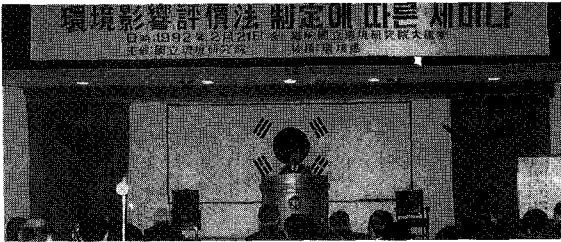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법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보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국립환경연구원(원장·이창기)은 지난 2월 21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김귀곤 교수의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외국의 예를 통해 국내에 맞는 효율적인 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환경관리연구소

폐기물처리 기술세미나



환경관리연구소(소장·이용운)는 오는 9월에 있을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시험에 대비, 지난 2월 12일~14일, 2월 19일~21일, 2월 26일~28일 등 3회에 걸친 「폐기물처리 기술세미나」를 송실대 및 간호사회관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2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실대 도갑수 교수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특강 및 폐기물처리기사시험에 대비, 관련전과목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수질보전학회

'92년 정기총회

한국수질보전학회(회장·홍사육)는 지난 2월 14일-15일 양일간 대구수성관광호텔에서 「1992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細見正明 박사의 「일본에 있어서 염색폐수의 처리 현황과 전망」, 대구직할시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 구본대소장의 「대구시 하수도 시설현황과 장래계획」에 관한 특별강연에 이어 연세대 이동수교수의 「우리나라 주요 약수의 화학 조성 및 특성에 관하여」 등 한·일 수질전문가 20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교통개발연구원

대기오염저감정책 워크숍

교통개발연구원(원장·최규영)은 총대기오염물질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환경오염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3일간 교통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교통부문의 에너지소비 및 대기오염저감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가졌다.

대만·멕시코 등 8개국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구사례와 각국의 관련정책 및 현황이 발표된 한편 대책마련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토의되었다.

한양대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환경위해평가 및 관리

한양대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소장·김윤신)는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문제의 위해평가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끌어내고자 지난 2월 24일 한양대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최근 환경위해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텍사스주립대 보건대학원 이은설교수의 「환경위해평가 및 관리정책의 개요」, 미국 환경청 Lance A.Wallace 박사의 「공기, 음료수, 가정 먼지중에서 VOC의 폭로평가」 등 4편의 주제 발표와 심도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